YTN 社報
• 발 행 : YTN • 편 집 : 홍보심의팀
• 대표전화 : 398-8000 • FAX : 398-8199
• 제 보 : 398-8282(빨리빨리) 398-8585(바로바로)
• 휴대폰 YTN뉴스 청취 : 200-2424
2006년 5월 3일 | www.ytn.co.kr |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 타워 | 제 65호

YTN, SO와 '5·31 지방선거' 선거방송 협력체계 구축

5월 31일 치러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유일한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이 지역 매체의 주역인 케이블TV SO와 본격적인 선거방송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YTN은 이번 선거가 지난 95년 출범해 뉴미디어의 선두주자로 성장한 케이블TV가 지역매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내의 케이블TV선거방송기획단과 공동으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긴밀한 취재·보도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2005.11.1 YTN-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 업무제휴 협약 체결

이에 따라 YTN과 케이블TV선거방송기획단은 지난 2일 오후 2시 CMB대전방송 사옥에서 진행된 대전시장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대구·부산·경기·광주·서울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10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는 YTN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며, 전국 115개 SO는 지역채널을 통해 YTN과 동시에 생중계함은 물론 저녁 시간대에 자체 재방송도 하게 된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일정

지 역	일 시	장 소
대 전	5/ 2(화) 14:00	CMB대전방송
대 구	5/ 4(목) 14:00	TCN대구방송
부 산	5/ 8(월) 14:00	티브로드서부산방송
경 기	5/10(수) 14:00	티브로드수원방송
광 주	5/12(금) 14:00	CMB광주방송
서 울	5/16(화) 14:00	서강대 메리홀
서 울	5/19(금) 14:00	YTN

YTN을 통해 방송될 토론회 장면은 지상파DMB와 위성DMB의 YTN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디지털 YTN과 포털사이트 야후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된다.

YTN과 케이블TV선거방송기획단이 기울이는 이러한 노력은 케이블TV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DMB와 인터넷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대선과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미디어 선거의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YTN과 케이블TV SO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비단 이번 뿐만은 아니다. YTN은 지난 2004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케이블TV로선 최초로 각 당 선대위원장과 비례대표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토론회는 YTN이 기획과 섭외, 제작 등 방송의 전 과정을 전적으로 담당했었고, SO의 역할은 단지 YTN의 방송 내용을 전국으로 전송하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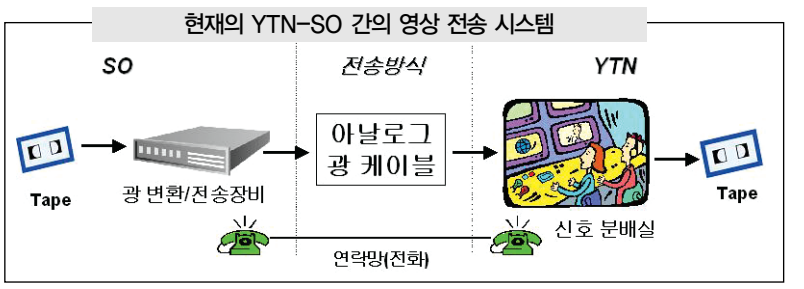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엔 토론회의 기획부터 방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YTN과 케이블TV선거방송기획단이 공동으로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 SO가 제작한 기초 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에 관한 리포트를 YTN이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하루에 3편씩 고정적으로 편성하는 등 협력의 폭이 17대 총선 당시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확대됐다.

이런 협력의 토대가 된 것은 지난해 11월 1일, YTN과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약칭 SO협의회) 간에 체결된 포괄적인 업무제휴 협약서였다. 당시 지역 취재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고심하던 YTN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밀착형 매체로서의 위상 강화를 꾀하던 SO협의회는 선거방송을 계기로 양 측의 취재 및 제작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하고, 그 첫 단계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에는 선거방송 협력 외에도 향후 뉴스 화면이나 프로그램 교환, 그리고 공동 취재 및 제작 등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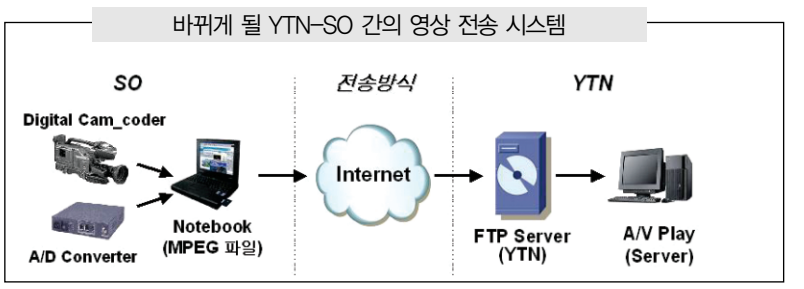
이의 후속 조치로 YTN은 이달 초부터 시작해 이달 중순까지 1차로 선정된 10개 개별 SO(공주, 당진, 목포, 순천, 원주, 충주, 익산, 진주, 포항, 안동)와 잇따라 업무제휴 협약서를 체결하고, 양사간의 원활한 뉴스 화면 전송을 위한 영상전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영상전송시스템이 구축되면 한국전력의 광케이블을 이용해야 했던 현재의 영상 전송 방식이 인터넷을 이용한 방식으로 간소화 된다. 이처럼 영상 전송 방식이 바뀌면 긴급 뉴스 발생 시 뉴스 화면의 교류가 신속히 이뤄질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뉴스 화면 교류가 확대됨으로써 YTN과 SO간의 취재 및 업무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YTN-SO 간의 영상 전송 시스템



바뀌게 될 YTN-SO 간의 영상 전송 시스템



3월호 목차

|2| ▶ 단 신
|3| ▶ 특파원보고서- 도쿄지국에 봄날은 올 것인가?
▶ 콘텐츠 혁신 성과 - YTN 뉴스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
|4| ▶ 공채10기 방송기자 - YTN의 미래
|5| ▶ 친절한 뉴스 - 뉴스나이트
|6| ▶ LANDEX 2006 - 환경조경산업 발전의 원년이 되길
|7| ▶ VIVA 박지성 YTN DMB / NCTA 2006 내셔널쇼
|8| ▶ 특종상 - 사라진 '안동별궁'의 발견
▶ 관광레저도시 - 상상력으로 빚은 도시 두바이

단 신

김승재 기자, 이달의 기자상 수상

김승재 기자(뉴스3팀)가 '이명박 시장 황제테니스 논란' 으로 187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5월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2006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대상' – 4편 선정

YTN과 YTN DMB는 방송위원회의 '2006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대상' 에 각각 2편의 프로그램이 선정돼 총 3억8천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YTN의 '에너지 위기, 대안을 찾아라' 와 '세계의 명견-야생에서 인류의 품속까지' 에 1억 원씩, YTN DMB의 'DMB 수호천사' 와 '기발한 비디오' 에 8천만 원과 1억 원씩이다.

YTN DMB '비바! 박지성' 최우수상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미디어 전시회 'MIPTV 밀리아' 에서 YTN DMB의 '비바! 박지성' 이 국제 DMB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았다. '비바! 박지성' 은 이동 방송을 시청하면서 각종 데이터와 쇼핑 등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양방향 DMB 프로그램으로 호주 출품작과 경합 끝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DMB 콘텐츠 공모전은 밉(MIP) TV가 영국 BBC와 방송위원회 등과 함께 마련한 뉴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의 하나로 올해가 첫 행사다.

기구개편

회사는 4월 20일자로 기구 개편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비보도국 조직에 팀제를 도입해 현행 2실 5국 15부 26팀에서 2실 4국 7부 33팀으로 개편했다.

경영기획실은 기획조정실을 확대해 기획팀, 뉴미디어팀, 디지털기획팀, 인사팀, 재무회계팀, 방송행정팀 등 6개팀으로 구성했고 총무국은 경영관리국의 기능을 조정해 총무팀, 타워운영팀으로 구성했다. 마케팅국은 폐지된 미디어국을 통합해 마케팅기획팀, 마케팅1팀, 마케팅2팀, 매체관리팀, 사업팀으로 구성했다.

보도국은 뉴스기획팀을 신설, 기동취재부와 사회부를 각각 사회1부와 사회2부로 개편, 문화부와 스크롤뉴스팀은 문화과학부와 디지털뉴스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술국은 제작기술부를 제작기술팀과 송출기술팀으로 분할했다. 홍보팀, 방송심의팀은 홍보심의팀으로 통합했고 감사팀은 폐지했다.

철도요금 할인됩니다

YTN 직원이면 누구나 철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회사는 사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철도공사와 철도요금 할인 계약을 맺고 있어, YTN 직원은 K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에 대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금 할인폭은 주중 20%, 주말 5%이나 주말은 주중 승차권과 동시에 구입해야 가능하다. 지난해 직원들은 90여회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할인을 받으려면 총무팀이나 방송행정팀에서 할인권을 받아 열차표 구매시 사원증과 함께 제출해야 된다.

김재동 부장, TV보도영상론 발간 TF팀장으로 선임

김재동 부장(홍보심의팀, 오른쪽)은 방송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TV보도영상론 발간TF팀의 팀장에 선임됐다. 이와 함께 최준영 기자(영상취재팀, 왼쪽)는 TF팀의 팀원으로 타사 촬영기자들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TV보도영상론은 카메라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지침서이자 보도영상에 대한 이론서이다.

독일 미디어 대표단 방문

토마스 랑하인리히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미디어 청장 등 독일 주 미디어청 연합 의장단이 3월 12일 YTN을 방문해 지상파 DMB 시설을 견학하고, 방송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독일 대표단은 특히 지난해 12월 본 방송을 시작한 YTN DMB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는 등 우리 지상파 DMB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 대표단, YTN DMB 방문

중국내 방송을 총괄하는 부서인 광전총국 대표단이 DMB 도입에 앞서 국내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4월 18일 YTN DMB를 방문했다. 루오 잔휘 부사장 등 대표단은 스튜디오와 주조종실 등 YTN DMB 방송 시설을 견학하고, 한중 방송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육군본부 장교, YTN 견학

육군본부 정책부서 영관급 장교 80여 명이 4월 12일과 5월 3일 2차례에 걸쳐 YTN을 방문해 뉴스 제작 과정과 방송 현장을 둘러봤다.

YTN 제13기 정기주주총회(3.24)

기술인 협회 '2006 봄날 단합대회' – 고양 어울림누리(4.22)

게 시 판

■ 포 상

▲특종상 금상

고한석 · 이선아 기동취재부, 강영관 영상취재팀-토익 부정해위 의혹 보도

▲특종상 은상

김승재 기동취재부-사라진 궁 '안동별궁' 발견 보도

지순한 사회부 -고려대, 입학전형 의혹 보도

▲특종상 동상

이동우 차장대우 정치부-한나라당, 성추행 고소 무마 시도 보도

김선중 스포츠부-이종격투기 '프라이드챔피언 효도르' 출연 섭외

황보선 뉴스2팀-삼성전자 LCD핵심기술 유출 보도

▲우수프로그램상

이문세 차장대우 · 오유철 영상기획팀-최후의 낙원 "DMZ" 제작

▲공로상

백선기 차장 · 최영욱 · 장명호 영상취재팀-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인터넷 송출 공로

보도국 영상편집팀-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및 WBC뉴스특보 편집 공로

조주현 중계부 소방 방재청 SNG 수신 공로

장훈희 마케팅2부 마케팅실적 우수 공로

▲특별상

최우수팀 뉴스5팀 시청률 향상 공로

우수팀 뉴스2팀 시청률 향상 공로

■ 입 사

박기현, 봉지욱, 오승우, 한아란, 홍주예, 황혜경 보도국 4.10

■ 퇴 사

박성균 부국장대우 4.30

■ 승 진

▲차장대우 한정호 편성운영팀, 최재민 · 김주환 · 이광엽 사회1부, 장영한 · 박동일 대전지국, 손재호 대구지국, 왕선택 국제부, 조승희 해외방송팀, 강성웅 뉴스3팀장, 김동민 뉴스6팀, 이준호 그래픽팀, 김대경 영상취재팀, 정희인 영상기획팀, 김형욱 기술관리팀, 박종대 중계팀 4.26

■ 전 보

홍성혁 선거방송팀, 전준형 스포츠부 3.31 / 황성수 지역 지상파 DMB 사업추진단장 4.5 / 최남수 경영기획실장 직무대행 겸 기획팀장, 강흥식 인사팀장, 윤두현 홍보심의팀장, 유종선 총무국장, 최수호 총무팀장, 전무복 타워운영팀장, 김익진 뉴스기획팀장, 김흥규 사회1부장, 추은호 사회2부장, 이귀영 문화과학부장, 김종술 국제부장, 강성웅 뉴스3팀장, 김형근 뉴스4팀장, 박상남 뉴스5팀장, 유제웅 뉴스6팀장, 김사모 디지털뉴스팀장, 이계성 기술관리팀장, 이창준 제작기술팀장, 이성호 송출기술팀장, 박종찬 중계팀장, 우장균 마케팅기획팀장, 김윤섭 마케팅1팀장, 김해중 마케팅2팀장, 백동범 사업팀장, 김관상 홍보위원, 전병모 부국장대우 신사업추진단, 최대만 부장 감사실, 박중훈 부장대우 기술관리팀, 이기정 차장 정치부, 윤종수 차장 사회1부, 상수종 차장 사회2부, 김인철 차장 부산지국 울산, 심창래 부장대우 마케팅기획팀 4.20 / 박정한 부장 경영기획실 방송위원, 임종열 차장 기획팀, 김상우 차장 · 원경태 차장대우 · 임장혁 · 김명숙 · 유투권 뉴스기획팀, 황선욱 차장 편성운영팀, 김영수 · 임승환 정치부, 송태엽 차장대우 · 이재홍 경제부, 유충섭 · 권영희 · 김잔디 · 사회1부, 김진호 차장대우 · 김수진 사회2부, 권오진 차장대우 · 김선희 · 김진두 · 김지현 · 한민정 · 이상지 · 정혜윤 · 양혜경 · 강병운 문화과학부, 홍상희 · 전가영 국제부 · 김정회 · 오승엽 뉴스1팀, 황보연 뉴스2팀, 김승재 · 장기영 · 장민수 뉴스3팀, 박순표 뉴스4팀, 배성준 뉴스5팀, 김호준 · 이승은 뉴스6팀, 김명우 · 이광연 앵커팀, 주동원 부국장, 오수학 부장, 강철원 부국장대우 디지털뉴스팀, 박진수 영상취재팀, 김태운 영상기획팀, 이한상 국장대우 · 남상규 부국장대우 · 조용원 부장대우 영상취재팀, 김재학 디지털기획팀, 조상헌 기술관리팀, 김영철 차장 · 문석호 차장대우 · 유제동 · 정성욱 · 강희택 · 이정우 · 서대원 · 이성호 · 이경준 · 양태열 · 이병문 · 이승우 송출기술팀, 박두만 제작기술팀, 최광락 차장대우 · 김진국 중계팀 4.25

■ 기구개편에 의한 일괄발령

▲기획조정실 기획팀, 뉴미디어팀, 디지털기획팀 → 경영기획실 기획팀, 뉴미디어팀, 디지털기획팀 ▲경영관리국 인력관리팀 → 경영기획실 인사팀 ▲경영관리국 재무회계팀, 방송행정팀 → 경영기획실 재무회계팀, 방송행정팀 ▲기획조정실 방송심의팀, 홍보팀 → 홍보심의팀 ▲경영관리국 총무부, 타워운영부 → 총무국 총무팀, 타워운영팀 ▲보도국 기동취재부, 사회부 → 보도국 사회1부 ▲보도국 사회부 지방지국 → 보도국 사회2부 지방지국 ▲보도국 문화부 → 보도국 문화과학부 ▲보도국 스크롤뉴스팀 → 보도국 디지털뉴스팀 ▲기술국 기술관리부, 제작기술부, 중계부 → 기술국 기술관리팀, 제작기술팀, 중계팀 ▲마케팅국 마케팅기획부, 마케팅1부, 마케팅2부, → 마케팅국 마케팅기획팀, 마케팅1팀, 마케팅2팀 ▲미디어국 매체관리팀 → 마케팅국 매체관리팀 ▲미디어국 문화사업팀, 해외사업팀 → 마케팅국 사업팀 4.20

■ 부 음

이철규 타워운영부 부친상 3.22 / 고광남 상무 모친상 3.25

■ 결 혼

박종혁 부산지국 3.18 / 최애란 그래픽팀 4.16

특파원보고서 ②- 도쿄

도쿄지국에 봄날은 올 것인가?

왼쪽부터 이태훈 윤경민 사이토 신지로

"YTN은 원래 그런 카메라로 찍어요?"

지난해 부임 초 아이치 박람회 개막식을 취재하던 중 지나가던 한국인 관람객이 신기하다는 듯 내게 던진 말이다.

거기까지는 뭐 괜찮았다.

"원래 기자가 혼자 찍나요?"

스탠드업을 찍느라 일반 스틸 카메라용 삼각대에 6밀리 카메라를 올려놓고 마이크를 연결해 리모컨을 조작하는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다소 황당하다는 듯한 말이 내게는 약을 올리는 소리로 들렸다.

바람이 세게 불었던 터라 가벼운 삼각대가 버티지 못하고 흔들렸다.

"미안하지만 그 삼각대 좀 잡아주실래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관람객에게 엉뚱하게도 나는 필사적인 구원의 손짓을 해야 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 파키스탄에 출장 갔던 종욱이가 회견장에 마이크만 든 채 카메라는 어디 있느냐는 다른 기자의 의아스럽다는 질문에 "유노 히든 카메라?"라며 웃지 못 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석 달쯤 흐른 6월, 유학생 이태훈씨를 현지에서 채용해 혼자서 화면 찍는 일은 면하게 됐다. 또 6밀리 디지털 카메라 전용 삼각대와 와이어리스 마이크 장비를 보완했다. 현장 취재가 한층 수월해졌다. 하루는 TBS에서 급하게 화면을 받아 전송할 일이 있었는데, 테이프를 받고 카메라에 넣으려고 보니 이게 웬일인지 테이프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TBS에서 건네준 테이프는 DVC pro였고 도쿄지국에서 사용하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것은 미니DVC였던 것. TBS는 미니DVC로는 제공할 수 없다고 해 그렇다면 우리는 전송수단이 없으니 TBS 화면을 받을 수 없다며 '배째라' 작전으로 나갔다. 이 또한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회사에서 미니DVC 플레이어 같은 장비를 사줄리 만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결국 TBS가 베타캄 플레이어와 미니DVC 플레이어, 그리고 모니터를 사무실에 설치해줬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TBS 서울지국 이타니 지국장의 도움이 매우 컸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환경이 나아지긴 했지만 다른 방송에 비하면 여전히 열악, 그 자체다. 특파원 2~3명에 카메라 기자 2명씩, 여기에 사무실을 관리하는 직원도 따로 있다. 또 지상파 3사는 제휴사와 화면을 서로 무료로 제공하는 형식인데 반해 우리는 화면을 받을 때마다 따로 계산하는 형식이어서 회사 재정상 좋은 화면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뿐인가? 남들은 3보 이상 무조건 취재차 탑승인데, 우리는 언제나 지하철에 뚜벅이 신세다.

장비나 인원, 취재차가 없는 건 그런대로 견딜 만하다. 문제는 그런 처지에서 시쳇말로 '빵이' 치며 정성을 다해 만든 리포트가 허름한 시간에 1~2번 나가고 사장될 때면 그야말로 의욕상실이다.

열차로 왕복 3시간을 오가며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도쿄 음식박람회장을 발바닥이 부르틀 만큼 돌아다니며 취재해 만든 리포트도 나름대로 화면 좋은 리포트였다고 자부했는데, 푸대접을 받고 말았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1년을 버텨왔다. 지금까지 고생해준 카메라맨 이태훈씨는 영화 공부에 전념하기로 했다. "태훈아! 그동안 고마웠다."

4월부터는 어렵게 구한 일본인 카메라맨 '사이토 신지로' 군과 새로 호흡을 맞춰나간다. 앞으로 남은 2년 남짓의 임기, 언제쯤에나 다른 특파원들과 대등한 환경에서 취재할 수 있게 될까?

과연 YTN 도쿄지국에 봄날은 올 것인가?

윤경민 도쿄특파원

콘텐츠 혁신 성과

YTN 뉴스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YTN의 콘텐츠 혁신 작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 속에 1기를 마감하고 2기의 돛을 올렸다.

"뉴스는 진화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슈에 집중하는 뉴스 ▶영상 중심의 뉴스 ▶수요자 중심의 뉴스를 표방했던 콘텐츠 혁신은 지난해 11월 창사 이래 최대 편성개편 및 스튜디오 리노베이션과 함께 시작됐다.

콘텐츠 혁신 이후 지난 2월말까지 넉 달의 시청률을 집계한 결과 2시간짜리 주력뉴스 프로그램 6개의 시청률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새로운 콘텐츠 형식을 전진 배치하고 과감하게 이슈에 집중하는 편집으로 주목받았던 〈뉴스 Q〉(오후 5시-7시)는 평균 시청률이 81% 오르는(0.490→0.886) 괄목할 성과를 내놓았다.

또 전통적인 시청률 약세 시간대를 공략한 〈뉴스 오늘〉(오전 8시-10시)도 평균 시청률을 63% 끌어올렸고(0.422→0.688), 심야 시간대의 〈뉴스 나이트〉(오후 10시-12시)도 평균 시청률을 52% 상승시키는(0.485→0.738) 개가를 올렸다.

이런 시청률 상승치는 콘텐츠 혁신 직전 3개월간 평균 시청률, 그리고 지난 3년간 같은 기간의 평균 시청률과 대비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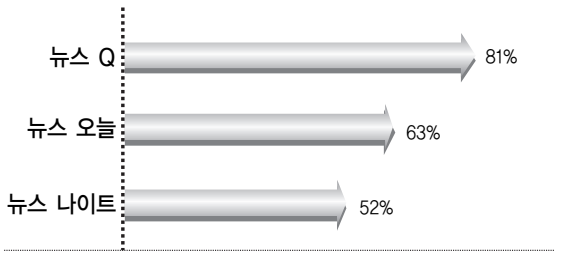
세계 최대의 뉴스채널인 CNN의 미국 내 시청률이 1%를 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시청률 상승치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6개 뉴스팀 간의 경쟁체제는 자연스럽게 시청자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기사생산 방향을 전환시켰다.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슈 중심의 뉴스편집이 정착됐다. 전통적인 '리포트' 대신 영상과 현장음의 비중을 높이는 새로운 뉴스 콘텐츠 생산이 시도됐고 '앵커 리포트'와 '그래픽 뉴스' 등 시청자들의 이해를 친절하게 돕는 뉴스 형식도 도입됐다. 스튜디오와 그래픽 개선은 이렇게 달라진 내용물을 깔끔하게 포장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고광남 상무를 위원장으로 각 직능 대표들이 참여한 〈콘텐츠 평가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차례 회의를 통해 YTN 뉴스의 질이 업그레이드됐고 이런 질적 향상이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런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 한 발 앞선 이슈선점 노력 ▶ '새로운 콘텐츠'의 개념 정립과 모범사례 제시 ▶ 컴퓨터 그래픽과 자막, 스튜디오 등 시각적 요소의 혁신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YTN은 지난 4월 보도국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콘텐츠 혁신 2기의 출범을 선언했다. 수요자 중심으로 이슈를 선정, 기획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기획팀이 신설됐다. CQ(Chief News Curator)단은 뉴스를 편집하는 뉴스팀과 더욱 밀접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재편됐다. 콘텐츠 혁신의 핵심인 새로운 콘텐츠 형식(분화 콘텐츠)을 정착시켜 뉴스의 주력상품으로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주요 프로그램 시청률 증가율



※ 콘텐츠 혁신 전후 평균시청률 비교

TV 뉴스의 패러다임은 급변하고 있다. 수요자들은 원하는 뉴스를 골라보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직접 정보를 생산, 유통하고 있다. TV 뉴스가 소비되는 공간도 인터넷은 물론 DMB, IP-TV, 와이브로(무선인터넷)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YTN 뉴스는 매일, 매시간, 매분 달라져야 한다. YTN 뉴스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호준석 뉴미디어팀

공채 10기 방송기자

"YTN의 미래!"

봉지욱 77.11.18
고려대 국문학과 졸업

오늘날의 YTN이 있기까지 무척 많은 난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선배님들의 희생과 열정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후배인 제가 선배님들의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기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어느 선배님의 말씀이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간의 형상을 갖춘 후,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성실한 기자가 되어 선배님들께 그리고 시청자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아무리 매섭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등 돌리지 않고 맞서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박기현 78.4.17
충남대 영문학과 졸업

'박기현 님의 최종합격을 축하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던 2002년 월드컵의 구호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느라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설레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기자라는 새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끊임없는 호기심과 문제의식으로 기자의 삶을 조금씩 배워나겠습니다. 풋내기 학생기자 시절부터 품어온 열정이라는 양념도 듬뿍 뿌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현장의 역사가로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는 YTN 기자가 되겠습니다.

한아란 78.9.14
New York University 저널리즘 전공

1998년, 미국에서 언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없이 무작정 뉴욕에 갔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도전한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지금의 마음이 그 때와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미국 여러 방송국에서 잠시 일하고 한국에선 아리랑 TV에서 영어기자로 일하는 동안 타성에 젖어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이 싫었고 새로운 일에 새로운 맘으로 도전하고 싶어 YTN에 도전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일하겠습니다.

홍주예 82.6.19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매일 새로운 사람과 사건을 만난다는 것은 긴장되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밖으로부터 다가오는 새로움에 긴장하지 않고, 제 안에 낡음이 생겨나는 것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진중한 이성과 발랄한 감성을 조화시킬 줄 아는, 꿋꿋하지만 뻣뻣하지 않은 기자가 되겠습니다.

오승우 79.7.6
서울대 지리학, 언론정보학 졸업

최종합격을 한 뒤에 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편지를 건네셨습니다.

"승우야! 기자는 움직이는 사법기관이다. 항상 가슴에 시퍼런 도덕률을 지니고 기자생활을 해라."

어머니에게, 그리고 YTN에 부끄럽지 않은 기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혜경 81.4.15
이화여대 방송영상학 졸업

기자직을 막연히 동경한지 13년, 소명으로 여긴지 3년 만에 24시간 뉴스채널 YTN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표가 오로지 '기자가 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바람직한 기자가 되는 것'이란 생각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듭니다.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기자, 냉철한 이성, 따뜻한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공채9기 당부의 말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쇄도하는 축하 전화에 답례는 다 하셨나요? 평소의 몇 배로 늘어난 싸이 방문자 수에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방에 가득하게 쌓여있는 각종 스터디 자료와 신문은 이제 좀 치우셨어요? 벌써부터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기다렸거든요. 이 글을 읽을 때쯤은 조금은 늦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YTN에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9기 이지은입니다.

잠이 고프던 수습 시절, 선배들은 저희를 보면 "힘들지? 조금만 더 참아라"라고 말을 걸곤 하셨습니다. 이 인사말이 "요새 재밌니?"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새 "후배 받아서 좋겠네"로 변한 것을 들으면서 제가 선배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겨우 1년을 조금 넘긴 기자 초년병일 뿐인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주제넘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걸을 길을 바로 앞에 걸어온 사람인만큼,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솔직 담백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해마다 대학 입시철이 되면 나오는 전국 수석의 뻔한 인터뷰 아시죠? 학교 수업에만 충실하고 잠도 꼬박꼬박 잤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우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 비단 기자생활 뿐 아니라 세상살이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규칙일 겁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기본과 원칙만 충분히 지켜준다면 일단 여유로운 출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 곳 역시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아야하는 기자라고 해도, 이 공간 역시 사람들이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역시 YTN이라는 공간의 한 구성원으로 자연스레 녹아들기를 바랍니다. 물론 '공은 공, 사는 사', 일할 때는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일 필요가 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 일의 능률을 높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을 겪게 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잃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의 좋은 점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세요. 저 역시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주로 경찰이나 피의자였지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많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고민하되, 절대 기죽지 마세요. 부족한 점은 남들을 보고 배우고 자신의 장점을 키워 가면 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입사할 때 노보에 썼던 입사소감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당시에 "운명의 여신은 보다 덜 신중하고 더 대담한 젊은이의 편이다"라는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제 젊음의 꿈을 YTN에서 펼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년하고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언제나처럼 돌아온 봄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그 때의 '덜 신중하고 더 대담한' 기분으로 돌아가 씩씩하게 달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말이죠.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이지은 사회1부

프로그램탐방 - 뉴스나이트

친절한 뉴스 – 뉴스 나이트

1. 지나가는 말들 "요즘 밤 뉴스 정말 좋아졌어"

"시청률도 예전과 달라. 장난 아닌데?" 종종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분들이 있다. 이런 칭찬을 들을 때는 쑥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면전에서 "더 잘 할 수 없어?" " 좋은 리포트 다 모아놓고 그게 뭐야?" 라는 비판적 표현을 못하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밤 뉴스가 좋아졌다' 는 칭찬은 하루 종일 취재와 제작에 애를 쓴 모든 관련자들의 '공' 으로 돌리고, '밤 뉴스가 형편없다' 는 질책은 우리 뉴스 6팀의 '과' 로 떠안을 것이다. 왜? 죽으나 사나 우리 6팀은 밤 뉴스의 최종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2. 밤을 지키는 '친절한 뉴스 나이트'(밤 10~12시)

나이트클럽의 구호나는 농담 섞인 지적도 있었지만, '친절한 뉴스, 친절한 뉴스 나이트' 는 시청자야말로 우리의 최대 고객이자 공략 대상임을 매일 매일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영화 제목에서 차용한 밤 뉴스팀의 슬로건이다. 2+1 시스템에 의해 저녁 8시 뉴스를 워밍업(?) 삼아 진행하고, 밤 10시부터 본격적인 야간전투에 들어가는 6팀 전사들. "오늘은 톱을 뭐로 갈까요?" 이 질문으로부터 뉴스 나이트는 시작된다. 오후 4시 무렵 출근해서부터 밤 10시 뉴스 시작 직전까지 런다운을 이리저리 꿰맞춰 보면서 가장 전달력 있는 뉴스 구성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뉴스 6팀 탄생 초기에는 기사의 가치 판단, 뉴스 속의 구성 포맷, 그래픽 삽입 여부 등 많은 부분에서 제작진 간에 각자 다른 혈액형만큼 이나 견해차이도 크고 이를 조율하는 것도 큰 일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하면 차별화되고 전달력 있는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자 고민 속에서 나왔던 통과의례였다.반년이 흐른 지금은 구성원 간에 손발이 척척 맞아서 뉴스가 제작되고 있으니, 이제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어때 이 모 PD, 이제 편집팀 떠나서 '경찰기자' 로 돌아갈 때 되지 않았니?

3. 고객이 좋아 기절할 때 까지

밤에는 하루 종일 전화연결과 속보로 떠들썩했던 보도국도 잠잠해진다. 취재 기자들도 뉴스 포맷 중에 가장 전달력 있는 리포트나 구성물로 제작해놓고 당직자들만 남겨놓은 채 퇴근을 하거나 속보 취재차 어둠 속으로 사라진 시간이다. 이미 밤 뉴스의 전체적인 얼개가 확정된 이 시간대에 예상치 못 한 산뜻한(?) 사건이라도 터져주면 뉴스팀원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돈다. 야근 기자들에게 속보를 챙겨달라고 하고, 전화 연결을 부탁 하고, 그래픽 의뢰하고, 구글 어쓰를 탐색하고 앵커 원고도 새로 고쳐 프린팅하는 등의 분주한 움직임을 마치고 부조정실로 뛰어 들어가는 PD들의 발걸음도 훨씬 힘차다.

하루의 뉴스를 가장 호소력 있게 전달하고자 치밀하게 방송 런다운을 구성했는데, 여기에다가 방금 들어온 따끈한 새 소식까지 가미된다면 이야말로 시청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뉴스가 아닐까? 우리가 누구인가? 고객이 감동하는 차원을 넘어 고객이 좋아서 기절할 때까지 얼마든지 몸이 바빠질 준비가 갖춰진 뉴스 6팀이다.

4. 개성 시대 뉴스

런다운에는 담당 PD별로 개성이 보인다. 아이템 배치를 보면 그렇다. 또한 만나는 사람이나 한밤중에 걸려오는 시청자 전화를 청취해보면 뉴스 수용자들의 시각 또한 천차만별 제각각이다.정답은 없지만, 뉴스 PD들은 가장 설득력있는 답안지를 내놔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늦은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YTN 뉴스를 켜고 조간 신문과 인터넷을 검색한다. 외부 손님이 찾아올 경우 부조정실에서 언제나 라이브로 진행되는 모습을 견학시켜주면 모두 감탄하는 눈초리다. 물론 다양한 화면 구성과 능숙한 진행 기법은 뉴스의 방송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날마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과연 콘텐츠를 어떻게 가공해서 배치할 것인가 , 그리고 어떤 뉴스를 비중있게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뉴스의 비중에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있을까? 뉴스 나이트는 밤 10시부터 시작되기에 이전에 방송된 뉴스 1~5팀까지의 런다운과 지상파 방송의 저녁 뉴스도 모두 모니터한다. 그러다보면 자칫 다른 팀, 또는 다른 방송과 비슷한 형태의 뉴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과연 시청자가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 뉴스의 가치 판단에 100% 정답은 없다. '중요한 뉴스는 빠짐없이 스크린 하면서도 우리만의 개성 있는 뉴스를 만들어내자' 뉴스 나이트는 늘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다.

5. 밤 생활의 장점 몇 가지

식사를 하루 두 끼로 줄여 살림에 보탬이 된다.(아침 11시쯤 점심 같은 아침 식사를 하고 회사에서는 저녁식사. 땡!)

술자리에서 약한 모습은 보일 수 없다.(자정 넘긴 시간에 합류하게 되므로 이미 어느 정도 '맛' 이 가 있는 상대방을 간단히 K.O 시킬 수 있다)

집에서 잔소리를 안 하게 된다.(아이와 마주치지 않으니 '공부하라' 는 잔소리 할 기회가 없다–이걸 장점이라고 해야 하는지)

바쁜 척 할 수 있다.(각종 공적 사적 모임에 참석 못하는 이유가 모두 '회사 근무' 때문이다–무척 바쁜 줄 안다)

6. 뉴스 나이트를 만드는 사람들

뉴스팀 출범 초기.

박소정 새내기 PD가 뉴스 진행을 위해 부조정실에 들어가면 모두 초긴장 상태가 된다. 선배들은 '저 덜렁이가 어떤 실수를 할까?' 하면서도 우리만의 코믹실수를 기대해본다.

"어.어.. 다음에 뭐지요? 아~ 리포트… VCR 스타트~" 힘차게 콜을 하지만, 방송화면에는 중간광고가 버젓이 방영된다. 막내 PD의 어처구니 없는 콜 실수지만, 임준석 기술감독을 포함한 팀원들은 언제나 느긋하게 박 PD의 실수를 온 몸으로 커버해준다.

박 PD의 천적 겸인 이종구 PD가 미리 준비해 둔 맹비난을 쏟아 붓지만 여기에도 후배사랑이 듬뿍 담겨있다. 이 와중에도 김동민 PD는 단 한 개의 오자 · 탈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원고를 매만진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뉴스 6팀.

밤 늦도록 활기찬 표정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김문경 박신윤 앵커, 기술팀, 기상팀, 정영란 AD까지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이기정 차장 정치부

LANDEX 2006

환경조경산업 발전의 원년이 되길 기원하며…

웰빙 트랜드에 가장 적합한 조경

최근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대표적인 유행 중 하나가 '웰빙' 이다. '잘 먹고 잘 살자' 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임에도 그동안 '성장' 과 '개발' 이라는 목표에 가려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새삼스럽게 관심사가 되고 있는 트랜드다.

이러한 '웰빙' 트랜드에 가장 적합한 부문이 '조경' 이 아닐까 싶다. 과거 나무 한그루 심는 정도의 인식에서 벗어나 집안을 비롯한 주변의 녹색 공간 가꾸기를 통한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흙과 식물 만지기를 통해 건조한 도시 생활로 인해 피폐되고 메마른 정신과 가슴을 치유하기 위한 움직임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난해 8.31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국내 대부분의 주택업체들이 미분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험난한 미분양 파고를 뛰어 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자연을 그대로 아파트 단지로 옮겨 오는 조경 마케팅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파트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이 단순히 '실내에 머무는 건축물' 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가족과 이웃이 공유하는 생활 문화 공간' 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가정의 독점 공간이었던 실내공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하느냐보다는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이용공간이 얼마나 쾌적하게 꾸며지느냐가 주택 시장의 주된 트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인공적인 느낌을 없애고 살아있는 자연 환경을 아파트 단지에 그대로 옮겨오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 단지 내에 인간의 오감을 중시한 체험 공원이나 빗물을 이용한 자연친화형 건천을 만들고 주민 건강을 위한 헬스공원, 삼림욕장 등도 신 조경마케팅의 트랜드가 되고 있다.

21세기는 친환경개발시대이다.

최근 조성된 서울숲, 서울시청 앞 광장조성, 청계천 복원 등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건설과 환경의 상생, 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향후 충청권에 조성될 혁신도시를 '저성장 위주의 녹색도시화' 로 생태 면적률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도시환경 개선을 비롯해 바람직한 국토환경 건설에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공공 녹지의 조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는 점도 '조경' 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조경' 이 하나의 학문과 기술 분야로 우리나라에 뿌리내린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건축과 같은 인접분야에 비하면 아직도 일천한 역사이지만 해마다 배출되는 기술사, 기사 등 전문인력층의 확대와 최근 녹색도시로의 전환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국가시책의 움직임,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시민들의 '조경' 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정보화바람을 타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기류에도 불구,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공통의 관심을 가진 고객을 유치한다는 박람회의 경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조경분야에 관한한 전문적 전시 행사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서비스, 에너지 등 3차 산업과 IT, 디지털가전 등과 같은 첨단산업에 관한 전문박람회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새로운 상품, 고객들의 구매욕을 사로잡는 기상천외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유독 '조경' 산업만은 언제까지 '영세함' 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관련 전시행사의 한쪽 구석에서 소외된 방관자 신세가 되어야만 하는지. 별도의 조경관련 박람회가 없는 관계로 그나마 일부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시회라고는 경향하우징페어와 MBC건축박람회가 전부인 셈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환경조경 박람회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중요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조경업계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있어 왔다. 대외적으로 '조경' 분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환경 친화적이고 인간중심의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에 근거를 둔 조경 산업에 공동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조경전문 박람회 개최로 이어져 서울시와 YTN이 합심함으로서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를 중심으로 국내 조경업계를 대표하는 11개 범조경단체와 서울시, YTN이 공동으로 공동운영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경의 각 분야(설계, 자재, 시공, 학교)의 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환경조경 박람회인 LANDEX 2006(대한민국 환경조경 박람회)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오는 6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야외전시장에서 개최하게 될 이번 박람회에서는 단순히 조경자재 위주의 제품 전시만이 아닌 가정을 비롯한 도시녹화관련 시민운동 활성화와 올바른 환경조경관련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정한 환경조경 전문 박람회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조경분야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뜻있는 조경자재업체들과 협력하여 국내 저소득층은 물론 북한 및 동남아국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시된 조경시설물 중 일부를 기부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생활 속의 조경문화 정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반창우 사업팀

'2006 대한민국 환경조경 박람회'

'2006 대한민국 환경조경 박람회' 가 서울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야외전시장에서 6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이 행사는 21세기 친환경개발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열리는 국내 최초의 조경 전문 박람회다.

LANDEX 2006 추진위원회 발족 회의를 끝내고 (1.20 YTN 회의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백동범 문화사업팀장, 최종필 KG 엔지니어링 전무, 한승호 한설그린 대표, 이춘희 서울시 조경과장, 안계동 동심원 대표, 황용득 동인조경마당 대표, 전종열 금강아트휀스 대표, 반창우, 이대성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장, 오휘영 월간 환경과조경 발행인(상명대 석좌교수), 박종화 한국조경학회장(서울대 교수), 이성호 한국환경조경 자재산업협회장(엘그린 대표)

깐느 'DMB콘텐츠 국제공모전' 참가기

"VIVA 박지성 YTN DMB!"

이주선 DMB앵커가 '국제 DMB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상금 10,000유로를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받고 있다.

DMB 공모전 최우수상으로 호명되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출장 오기 몇 주 전부터 다들 고생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귀한 성과를 얻게 되다니요!

수상하기 위해 무대 앞으로 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수 백 개의 파란색 갈색 눈동자가 모두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칸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타 수상소감을 하러 올라온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MIPTV행사가 이렇게 큰 행사인지 칸에 도착하고야 알았습니다. MIPTV 행사는 전 세계 100개 나라가 참여하는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의 미디어 콘텐츠 행사이지요. 그 행사의 일부로 '콘텐츠 360'이라는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에 YTNDMB의 김신 피디가 응모하여 'VIVA 박지성' 프로그램이 최종 후보 4작품 중 하나로 선정된 것입니다. 콘테스트는 총 6개 분야인데 그중 DMB 부문은 올해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DMB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우리로선 다른 나라의 작품에 비해 단연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우리에게 그다지 유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영어로 발표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4팀 중 두 팀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캐나다와 호주팀이었고, 그나마 알티캐스트 한국팀도 특별히 이 발표를 위해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는 독일지사에 근무하는 분이 왔으니까요. 저희 팀은 그야말로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쳤다고나 할까요.

낮에는 YTN DMB를 홍보하기 위해 하루종일 홍보부스에 있었고 밤에는 숙소로 돌아와 발표 리허설에 전념했습니다. DMB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발표장에는 서양인들이 빽빽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DMB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다른 방송국 사람들에게 한 두 개씩 배급받은 신라면에 기내에서 가져온 김치와 박철원팀장이 한국에서 공수해온 고추장을 먹어가며, 버터 가득한 배를 달래며 연습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대한민국의 매운 맛을 톡톡히 보여주고 왔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YTM DMB의 힘을 보여주고 왔죠.

YTN DBM가 호명되는 순간, 세계의 첫 번째 DMB 앵커라는 소개를 받고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말 참 기분이 좋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상파DMB라는 뉴미디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수상소감으로 DMB의 잠재력을 믿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실로 DMB의 잠재력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지 이번에 프랑스에 가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도 DMB의 잠재력을 느끼고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DMB방송이 제작되고 송출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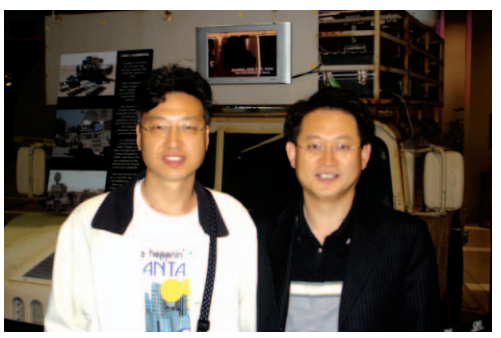
YTN DMB는 세상을 바꿔나갈겁니다.

VIVA YTN DMB!

이주선 DMB 채널운영팀

NCTA 2006 내셔널 쇼 참관기

디지털방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왼쪽부터 박형일, 한영규 부장

미국 케이블통신협회(NCTA)가 주최한 세계 최대 케이블TV 전시회 'NCTA 2006 내셔널쇼'가 아틀란타에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열렸다. 우리는 이곳에서 "A Great American Success Story-Cable"을 볼 수 있었다.

▷ 미국 케이블 TV 시장

미국의 케이블 TV 시장은 규모와 다양성면에서 한국 방송시장과 많이 달랐다.

풍부한 Content를 보유한 Comcast, 타임워너, ABC, NBC, Fox TV 등의 방송사들은 거대자본을 이용하여 케이블(SO & PP), 지상파, 위성, 인터넷 등 거의 모든 매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디지털 케이블TV 역시 주도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도 케이블의 주요 화두는 TV, 전화(VoIP), 인터넷서비스를 동일한 매체로 서비스할 수 있는 TPS(Triple Play Service)의 시장 확산이었다. 한국은 TPS(BCN)사업에 대해 DSL, 케이블 TV, 광랜 사업자 등으로 복잡하지만, 미국에서는 TPS사업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매체가 케이블 TV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현재시점에서-

IPTV도 이슈이기는 하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기술적으로 Cover 하기 위해서는 VDSL로는 불가능하므로 FTTH(Fiber to the Home)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IPTV는 특정지역에서만 서비스되고 있었고, 한국보다는 느긋해 보이는 듯 했다.

반면에 "a la carte"라고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FCC의 요청이 NCTA에게는 더 큰 이슈였다.

2006년 미국 케이블 TV의 견인차 역할을 예상하는 설문조사에서는 HDTV와 Mobile이 1, 2위를 차지했고, 사향 산업 1위로 CD 음반을 예상하고 있었다.

▷ 기술의 발전

첨단기술의 적용은 그리 빠르지 않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었다. 한국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화두였던 Open Cable 규격의 Cable Card가 지금에서야 본격적인 도입을 시작하고 있었고, 최신기술인 케이블 TV 인터넷을 통해 IPTV를 구현하는 "Cable over IPTV"의 기술도 "Switched Digital Video Delivery"라는 기술주제로 심도 깊게 논의 되고 있었다.

▷ 방송의 Personalize화

전시회에는 Comcast, 타임워너, Fox 등의 방송사들과 Cable 장비, 서비스 업체, 가입자 장비, 쌍방향 TV 게임 등이 다양하게 선보였다.

HDTV STB(Set Top Box)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복합단말기는 고화질방송을 보면서 Rewind, Forward, Pause 등을 할 수 있고, Mobile을 통해 예약녹화와 VOD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 DVD, Juke Box, VOD, Game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에 적합한 방송이나 VOD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멀티 Content의 생성과 재가공 서버 솔루션들도 선보였다. 또, IP-STB, DVR-STB 그리고 VOD서비스가 확산될수록, 기존 전통적인 방송광고가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됨으로써, VOD-STB Video Searching 시간 동안에 시청자 맞춤형광고를 보여주는 솔루션도 선보였다.(이 솔루션은 SO에서 구현 가능함.)

▷ 디지털방송의 미래

향후 미래의 디지털방송은 VOD서비스 등의 쌍방향성, 개인화와 맞춤형, Mobile 및 고화질TV 서비스 등 멀티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방송시장에서 강자로 생존하려면 (1)HDTV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2)Mobile Video로의 진출과 (3)VOD 등 시청행태 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으로 (4) Trend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미디어 그룹의 지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박형일 디지털기획팀

특종상 수상기

사라진 '안동별궁' 발견

안동별궁 취재는 즐거웠다. 사라진 궁을 찾아간다는 자체가 흥미로운 일이었다. 때론 발견의 기쁨에 때론 아쉬움에… 취재 내내 문화재 발견 과정의 흥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안동별궁 취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취재원 A씨로부터 걸려 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던 A씨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 본 결과 경기도의 한 골프장 안에 안동별궁 건물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역사학자도 건축학자도 문화재 전문가도 아니어서 그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다. 특히 지난해 말 한 언론사가 문화재 발견 보도를 크게 했다가 오보 논란에 휩싸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자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언론 보도 여파 탓인지 대부분 전문가들은 언급 자체를 회피했다. 그래도 조선말 궁 건물이 맞다면 꽤 의미 있겠다 싶었고 그래서 일단 취재에 들어갔다. 우선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역사에 문외한이었던 나는 이 기회에 조선 말 역사의 일부에 대해 배우는 즐거움도 가질 수 있었다. 고종 실록과 서울특별시사 고적편 등 관련 문헌을 뒤지며 안동별궁의 존재를 파악했고 안동별궁 사진도 몇 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안동별궁의 존재는 분명했고 사진도 확보했으니 이제 남은 건 골프장 안에 있다는 건물과 직접 비교해 보는 일이었다.

다행히도 어렵사리 문제의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이 자리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난 뒤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오래된 단청의 흔적과 지붕 위 용머리 등 건물 곳곳에서 궁궐 건물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현광루'라는 현판이었다. 안동별궁의 주요 건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광루'였기 때문이다. 취재를 마친 뒤 보도에 앞서 그래도 전문가의 인터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어렵사리 한 전문가로부터 "안동별궁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확보하면서 조심스럽게 1보를 보도했다.

1보 보도 이후 문화재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확인하며 후속 취재를 계속했고 이 과정에 안동별궁의 또 다른 건물이 서울 우이동 개인 별장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했다. 문화재청이 이 별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는 동안 이번에는 안동별궁을 누가 어떻게 해체했는지 추적하는 작업을 벌였다. 관련 문헌과 여러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를 통해 안동별궁 해체의 배후에 친일파의 후손들이 있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 밖에 안동별궁의 취재 과정에서 60년대 고급요정인 선운각 터에서 궁궐 건물의 흔적을 찾아냈고 남이섬에서도 궁 또는 관청 건물로 보이는 고건물을 확인하기도 했다.

취재 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칼바람을 맞으며 우이동을 돌아다니다가 북한산 자락 선운각 터에서 궁 건물 흔적을 찾았을 때다. 우이동에서 안동별궁의 또 다른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찾기 위해 이리 저리 수소문해서 다니다가 우연히 확인한 것이었는데 당시 너무나 추웠던 날씨, 그리고 고생 끝에 선운각 터 건물에서 용과 봉황 문양을 확인했을 때의 흥분이 잊혀지지 않는다. 당시는 안동별궁인줄 알고 신났는데 알고 보니 안동별궁은 다른 별장 터에 있었고 선운각 터 건물에 있는 용과 봉황 문양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궁 건물의 흔적이었다.

안동별궁 취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좋은 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던 박진수, 정희인, 이문세, 김윤석 기자의 도움이 컸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청의 조사가 다 끝난 뒤에는 최초 제보자 A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기를 바란다. 안동별궁을 발견한 것은 결국 A씨의 공로이기 때문이다.

김승재 뉴스3팀

새로운 삶의 터 - '관광레저도시' 제작기

상상력으로 빚은 도시 두바이

왼쪽부터 남상규 부장, 우장균 차장, 박진수

두바이에 왜 갔나?

설날 다음날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남상규 선배와 박진수 기자, 그리고 외부 피디와 함께 25박 26일 일정의 장정을 떠났다.

첫 번째 출장지인 지중해 연안 남부 프랑스에서 열흘정도 취재한 뒤 두바이로 떠났다. 기내숙박을 해피곤했지만 빡빡한 취재일정으로 바로 아라비아 사막의 끝자락으로 향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위에 어떻게 세계적인 무역과 관광의 중심도시가 세워졌을까?

특집 '새로운 삶의 터, 관광레저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아라비아 사막과 페르시아만 푸른 바다 사이를 달렸다.

인공섬은 왜 만드나?

두바이가 세계를 향해 과시하는 상상력의 압권은 팜 아일랜드 프로젝트(인공섬 계획)이다. 두바이시와 잇닿은 페르시아만에 인공섬을 만들어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이 사업은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린다.

왜 비싼 돈을 들여 굳이 인공섬을 만드는 것일까? 오일 달러가 넘쳐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바다위에 실없이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만드는 것일까?

두바이는 사막에 있는 도시이다. 사막엔 물이 귀하다. 사막 한 가운데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쓸모가 없다. 두바이는 해마다 10만 명씩 늘어나는 사람들을 수용할 주거공간을 위해 해변이 필요했다.

개발사업은 계속될까?

중동의 관문 두바이에 전 세계 크레인의 10%가 와 있다는 말이 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두바이를 만드는 건설현장은 그 속도와 규모면에서 세계적이다. 두바이에서 진행되는 상당수 프로젝트는 오일달러보다 외국자본을 유치해 추진되는 것이다. 두바이 건설경기에 대해 거품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외국자본은 하나 둘씩 떠날 것이다.

두바이에 파견된 한 지사장은 방이 둘 있는 아파트를 빌렸는데 한 달에 3백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임대료는 해마다 10% 이상 올라가고 있다. 두바이 부동산 경기는 우리나라 강남 부동산 경기보다 더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두바이에서 술을 파나?

파리에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면서 우리는 면세점에서 술 한 병을 사려다 두바이 전체가 면세지역이니 그곳에서 면세 양주를 사기로 했다. 두바이 현지 코디네이터가 이 얘기를 듣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바이가 사우디와 달리 집에서는 술을 먹을 수 있지만 일반가게에서는 다른 이슬람 국가처럼 술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텔이나 식당에서는 술을 시킬 수 있다.

우장균 마케팅기획팀장